

## 크리스마스실 결핵발견·예방 함께해요

연말 대표 나눔 캠페인 시작해…부산 모금 목표액 2억 400만 원



부산시는 대한결핵협회 부산 광역시지회와 함께 올해 크리스마스실 모금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크리스마스실 증정식’을 개최했다.

크리스마스실 모금사업은 시와 16개 구군, 공공기관,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연말 대표 나눔 캠페인이다.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결핵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

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전달식에서 시는 대한결핵협회 부산지회에 결핵 퇴치 성금 2백만 원을, 대한결핵협회 부산지회는 시에 크리스마스실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박남철 대한결핵협회 부산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크리스마스실은 '브레이브 소 시즌2' 캐릭터를 활용해 시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결핵 예방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제작

됐다.

그 외에도 열쇠고리(키링)·자석(마그넷)·가방(파우치) 등 다양한 팬 상품(굿즈)이 마련돼, 시민 참여 폭을 넓혔다.

올해 부산의 크리스마스실 모금 목표액은 2억 400만 원, 전국 목표액은 30억 원이다.

판매·기부를 통해 모인 기금은 ▲학생·시니어 결핵 치료 및 관리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환자 지원 ▲국제 결핵 퇴치 사업 및 저개발국 지원 ▲결핵 검사·연구·예방 홍보 등과 같은 사업에 활용된다.

시는 결핵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통해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와 구군 보건소는 매년 학교·어르신·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교육을 하고 있으며, 결핵 의심자에게 검진과 상담을 제공해 조기 발견을 돕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결핵 예방과 지원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 청년형 유홈(U home) 청년들에게 인기

5개소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 4.3대 1…달동 최고 경쟁률 보여



울산시가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청년층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형 유홈(U home)’의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총 5개소 136세대 모집에 589명이 접수해 평균 4.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달동이 26세대 모집에 139명이 지원해 6.28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삼산(5.37대 1), 백합(4.92대 1), 태화(3.6대 1), 양정(2.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주택 유형은 삼산의 시(C)형(전용면적 23㎡)으로 4세대 모집에 48명이 몰려 12대 1을 기록하면서 청년들의 높은 선호도를 입증했다. 이 외에도 백합 디(D)형 8.5대 1, 달동 시(C)형 7대 1 등이 높은 인기를 끌었다.

청년형 유홈(U home) 5개소는 지상 5층, 전용면적 20㎡ 내외 규모로 건립되며, 세대별 특화 품목으로 냉방고, 세탁기, 인덕션, 싱크대, 불박이장이 제공된다. 공용 공간에는 기본적으로 1호당 1개 이상의 계절창고 및 공유기실, 스

터디룸 등의 동아리 시설이 개소에 따라 다르게 갖춰져 있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울산 거주(또는 소득 근거지)인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신청자의 입주 자격을 심사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하고, 2월부터 4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형 유홈(U home)에 대한 높은 관심은 울산 청년들의 주거 안정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시가 추진하는 청년 주거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라며,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해 청년들이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홈(U home)은 지난해 성안동 36호, 올해 신정동 38호가 입주를 완료했고, 건립 중인 6개소 유홈 150호와 신축매입약정 유홈 48호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공급될 예정이다.

이호근 기자

## 1월 5일부터 전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

영양군은 2026. 1. 5.(월)부터 전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영양군민이라면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농어촌버스(영양동행버스)를 무임으로 이용하면 된다.

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은 12월 15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가족관계 확인 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존 우대 교통카드를 보유한 경우 영양군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기존 우대 기능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

의가 필요하며, 신청 시 담당자의 안내를 충분히 들은 후 발급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시행 중인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사업은 어르신 만족도 100%, 일반 군민 선호도 84%로 긍정적 평가 높았다.

영양군은 이번 무료화 시행으로 군민들의 이용 만족도 및 이용 패턴 분석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지는 만큼, 향후 대중교통계획 수립과 노선 개편 등에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영양군은 2026년부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계층별 환급률을 따라 대중교통의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도 시행 예정이

다.

영양에 주소지를 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제휴 카드사를 통해 K-패스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 회원가입 후 전국 어디든 교통카드 사용 가능할 수 있다. 이인수 과장은 “올해는 지난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 도입을 계기로 관내 농어촌버스에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으며, 내년엔 전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 및 K-패스사업 도입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군민들의 농어촌버스 이용 만족도 및 패턴 분석을 통해 군민 교통 복지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 시 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와 협약 체결해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에서 (사)AI 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와 대회 기간 의료 공동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청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겸 조직위원장, 민복기 AI 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 진기훈 조직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대회의 안전한 경기 환경 조성과 신속한 의료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는 △의료실무협의회 구성 및 의료 비상대응계획 공동 추진 △대회 공식병원 및 후송병원 지정·운영 △의료 인력 지원 및 응급의료 차량 배치 협조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의료 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회 기간 중 체계적이고 신속한 의료지원

WMAC 조직위,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WMAC)는 35세 이상의 생활체육인이 참가하는 대표적인 전세계 규모의 육상경기대회로, 경쟁보다 교류와 화합을 중시하는 글로벌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26회째를 맞는 이번 대구대회는 2026년 8월 21일(금)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22일(토)부터 9월 3일(목)까지 대구스타디움 등 4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2월 23일부터 내년 6월 23일까지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정기 조직위원장은 “내년 대구의 가장 큰 국제행사인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보다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약을 바탕으로 의료 직능단체 및 상급병원 등과 촘촘하게 신속한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선수와 방

문객들이 안심하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복기 협의회장은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선수와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의료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 김천 증산면~성주 가천면 미개설 지방도 903호 개통

개통으로 성주 금수강산면 35km 우회 불편 해소, 35분 단축 효과

경상북도는 성주군 가천면 신거리 증산가천터널 입구에서 이병환 성주군수를 비롯해 김천, 성주 지역 의원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도 903호선 증산~가천 간 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공사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개통에 이바지한 유공자 시상, 지역 축하 인사와 함께 개통을 알리는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했다.

증산~가천 간 도로는 연장 45km에 사업비 560억원을 투입해

2018년 12월 19일 착공 이후 7년 만인 2025년 12월 13일 정식으로 개통된다.

본 구간은 지방도 903호선의 마지막 미개설 구간으로 북측 성주군 금수강산면으로 약35km, 40분 거리를 우회하였으나, 1.1km 증산가천터널 관통 등 본 도로의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6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경북도는 증산~가천 간 도로 외에도 김천과 성주 지역에 가곡재터널 건설공사 등 7건 사업에 사업비 2,222억원을 투입

해 지역 인력, 자재, 장비 등을 우선하여 계획, 추진하고 있다.

배운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증산~가천 간 도로 개통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지역단일 해소를 가져다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행락 철 인근 교통 지·정체로 인한 주민불편 경감은 물론 성주호·포천계곡 등 천혜의 관광지에 더 좋은 접근성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 경북서부 내륙지역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 확신하며, 지속적으로 주민 이동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 경북협의회와 “AI 기반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구축 및 농공단지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기술 검증 및 표준화 모델 공동 개발 △지역 적합 품종 및 데이터 기반 최적 환경 조건 실증 연구 △매매뉴얼·기술 표준화 체계 구축 △전문인력 현장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상호 연계 등을 추진한다.

한윤석 기자

## 울주군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은행 확대해

BNK경남은행 울산영업그룹 업무협약, 최대 8년 동안 2억 대출금 한도



울산 울주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은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울주군과 BNK경남은행 울산영업그룹은 군청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황재철 BNK경남은행 울산영업그룹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

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울주군이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 2년 이내 △6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울주군에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8년 동안 2억 대출금 한도로 이자비용 중 2%를 지원(연 최대 400만원 지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주군은 사업 홍보, 대상자 모집·신청·추천,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총괄을 맡는다. BNK경남은행은 대출추천자에 대해 대출심사, 대출실행 등 업무를 지원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사업을 BNK경남은행과 함

께 추진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금융기관 선택폭을 늘리고 접근성을 개선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이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어린이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울주군 내 어린이공원 83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신규 조성되는 어린이공원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군은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내년 1월까지 홍보 확대 및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인 내년 2월부터 단속이 시작되며, 어린이공원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호근 기자

## 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안심 거래 환경 조성 ‘맞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회장 정지영)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부동산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도청에서 정지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장 등 임원진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는 도내 5,800여 명의 회원이 소

속된 단체로, 도민들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박 지사는 최근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공인중개사회는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를 찾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만큼,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협회가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회장은 “경남도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과 같은 지속 기부 활동과 주거 취약계층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보수 지원 등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물론 부동산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남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

회는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박완수 도지사와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대학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에 직접 연결되는 부산대 양산·밀양 캠퍼스의 활용 방안을 포함한 지역 혁신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성룡 기자